

영어듣기기능형성의 심리언어학적특성

정 명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교수는 외국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외국어를 소유하는데서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그 활용능력을 키우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인 입말기능은 접수 및 표현기능에 따라서 듣기기능과 말하기기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도 듣기기능은 접수기능으로서 입말기능형성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며 그 활용능력을 키우는 문제는 다른 기능습득에서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듣기를 진행할 때 개별적인 말소리나 단어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전반적인 정보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국어습득과는 달리 외국어습득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듣기를 진행할 때 개개의 말소리나 단어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문장과 본문으로 주의범위를 확대해나간다.

모국어로서의 듣기와 외국어로서의 듣기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형성적측면에서 외국어듣기는 우선 다른 기능들과의 밀접한 련관이 없이 독자성을 띠고 형성발전한다는데서 모국어듣기와 차이난다. 이것은 외국어교육에서 듣기기능이 다른 기능들과의 린접이 없이 순수독자적으로 형성된다는것을 말한다.

모국어로서의 듣기기능형성은 다른 기능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다른 기능들은 듣기기능형성에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듣기기능형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듣기

와 말하기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면서 듣기기능형성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실험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에 듣기기능과 말하기기능이 제약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한다는것을 보여준다.

Kathryn (24 months)

Lois: Did you see the toys I brought?

Kathryn: I bring toys? Choo choo? Lois brought the choo choo train?

Lois: Yes, Lois brought the choo choo train.

Kathryn: (reaching for bag) I want play with choo choo train. I want play with choo choo train. Want play. What's this?

Lois: Oh, you know what that is.

Kathryn: Put down on floor. This. I do this.

(Kathryn puts the slide on the floor.)

Kathryn: (taking out two cars of train) Do this. I want do this. (trying to put train together) I do this. I do this.

Lois: Ok. You can do it. You can do it. Look I'll show you how.

(Lois puts it together.)

Kathryn: (searching in box) I get more. Get more. No more choo choo train. Where a more choo choo train?

그러나 영어가 외국어인 경우 듣기기능형성은 일반적으로 고립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속에서 듣기기능을 다른 기능과 분리시켜 듣기련습에만 매달려있는 현상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기능형성적측면에서 외국어듣기는 또한

형성되는 듣기형태의 순차성에서 모국어듣기와 차이난다.

모국어듣기의 형태는 태어나서부터 부단히 조성되는 언어정황속에서 진행되는 일반듣기이지만 외국어듣기의 형태는 정확한 의미,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집중적듣기형태이다. 듣기기능형성에서 모국어인 경우 일반듣기과정으로부터 집중적듣기과정으로 발전하지만 외국어인 경우에는 집중적듣기로부터 일반듣기로 발전한다. 이러한 순차성에서의 차이는 듣기기능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기능형성측면에서 모국어듣기는 항상 정황이 동반되며 듣는 내용에 대한 실머리를 충분히 제공하여준다는데서 외국어듣기와 차이난다. 모국어듣기에서는 듣기가 1:1방식으로 자주 진행되는 반면에 외국어듣기에서는 외국어 그자체가 교육을 통하여 습득되는것만큼 록음기나 다매체자료를 리용하여 간접적으로 진행된다고 볼수 있다. 듣기가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모국어인 경우에는 듣기를 도모하는 여러 주객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듣기가 매우 쉽게 진행되지만 외국어듣기에서는 듣기를 도모하는 실머리가 부족한것으로 하여 힘들게 진행된다.

이러한 차이로 하여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경우 듣기기능형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언어학적특성들이 나타난다.

영어듣기기능형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언어학적특성은 첫째로, 듣기기능형성의 성숙단계에서는 듣기가 문장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듣기기능형성의 기초단계에서는 듣기가 개별적말소리나 단어들의 의미의 합으로 자주 진행된다는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이해는 말소리를 단위로 진행되지 않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기초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말소리에 대한 이해는 선차적인것이며 문장, 본문 등에 대한 이해가 개별적인 말소리에 대한 이해의 종합으로 되군한다.

실례로 아래의 빈칸채우기련습에서 매 문장에 eel이라는 공통적인 말소리가 들어있으며 마지막단어를 제외하고는 매 문장이 동일하다.

- (1) It was found that the _eel was on the axle.
- (2) It was found that the _eel was on the shoe.
- (3) It was found that the _eel was on the orange.
- (4) It was found that the _eel was on the table.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매 문장에서 서로 차이나는 말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장들을 듣고 읽으면서 문맥을 통하여 추측한것을 기록한다. 다시말하여 매 문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단어 즉 (1)에서는 wheel, (2)에서는 heel, (3)에서는 peel, (4)에서는 meal을 들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정확한 개별적인 말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즉 듣기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말소리를 분간하려는데로 지향되게 된다.

영어듣기기능형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언어학적특성은 둘째로, 듣는 사람은 자그마한 어음적 및 문법적변화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것이다.

집중적듣기가 기본형태인 영어듣기에서는 정확성을 요구하는것으로 하여 미세한 변화라고 해도 그것이 듣기에 주는 영향은 강하다.

우선 말소리의 미세한 변화가 영어듣기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실례로 영어단어들에서 자음 /p/가 단어의 어디에 놓이는가 혹은 어떤 다른 말소리들이 그뒤에 오는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발음되는것을 들수 있다. poo의 첫 글자 /p/는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을 받아 입술을 오무라뜨린 상태에서 발음되지만 peel에서 /p/는 입술이 퍼진 상태에서 발음되며 또 이 두 발음들중의 어느 하나도 spring에서의 /p/와 같이 동일하게 들리지 않는다.

말소리의 미세한 변화가 듣기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개별적단어들의 발음이 문장속에서도 똑같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례 A: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this evening?

/wɒdʒu θɪŋk wɪ ʃəd du: ðəs i:vnɪŋ/

B: I can try and book some seats for a movie.

/aɪ kn traɪm bʊk səm si:ts fərə mu:vi/

A: What's on?

/wɒtsɒn /

B: There's 'Rain Man' or 'The Night Porter' at the Odeon.

/ðəz reɪm mæn ɔ: ðə naɪt pɔ:tə ət ði jəʊdeɪm /

A: Let's go and see 'Rain Man'. Where's my handbag?

/lets ɡəʊ wən si: reɪm mæn weəz mi hæmbæɡ /

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말소리연쇄에 의하여 개별적단어들사이의 경계가 사라져 말소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이다.

말소리변화는 개별적인 단어에서보다 문장속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들은 듣기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영어문장구조가 듣기과정에 학생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장에 대한 이해는 말소리나 글자, 어휘적의미의 해독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포함하고있다.

례:① The dog is chasing the cat.

② Isn't the cat being chased by the dog?

우의 실례 ②는 단순히 그것이 물음문으로서만이 아니라 ①과는 달리 세번의 문법적변화 즉 부정, 피동, 물음문으로의 변화를 거치였기때문에 ①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논리적으로도 ①과 같은 단순한 문장들이 ②와 같이 복잡한 문장들보다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더 쉽다는것은 명백하다.

영어듣기기능형성에서 나타나는 심리언어학적특성은 셋째로, 듣는 내용에 대한 표상이 부족하면 이해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것이다.

영어듣기가 듣는 내용에 대한 종합분석과정이고 능동적인 사고활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언어행위인것으로 하여 듣는 내용에 대한 표상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듣기과정에 이러한 표상을 가지는것이 복잡한 심리적과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련상, 전이, 간섭 등 여러가지 심리학적문제들을 동반하기때문이다.

머리속에 저장되어있는 단어들에 어떻게 접근하여 그에 대한 표상과 이해를 가지는가 하는데 대한 하나의 설명이 언어정보를 통한 이해이다.

단어를 듣거나 혹은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은 머리속에 기억된 개별적인 언어정보들을 자극시키거나 어휘탐색기구를 자극시킨다. 그러면 언어정보들은 거대한 신경망에 있는 개별적인 신경들과 련계를 가지게 된다. 즉 어느 하나가 자극되면 다른것들과 함께 협조하여 단어에 대한 표상과 이해가 진행되게 된다.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은 자주 리용되는 언어정보에 의해 반영되게 된다. 그러므

로 그것들은 빨리 그리고 자주 생성된다.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은 머리속에서 그것을 되살리기가 힘들고 높은 장벽을 가지고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언어정보들에 대한 표상이 세워지고 단어에 대한 이해가 진행된다. 즉 단어들의 철자법에 의하여(실례로 **threw**와 **through**와 같이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동음이의어들), 그것들의 발음에 기초하여(실례로 동사 **lead**와 명사 **lead**처럼 철자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동형이의어) 혹은 그 단어가 수행

하는 문법적기능에 의하여(실례로 **smell**은 명사로서도 동사로서도 기능을 수행할수 있지만 **hear**는 오직 동사로서만 기능을 수행하며 **hearing**이나 **sound**와 같이 명사로 쓰일 때는 파생적 혹은 어휘적변화를 요구함) 언어정보에 대한 이해가 진행된다.

우리는 외국어듣기를 비롯한 언어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